

인터뷰-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성숙한 구성원 모습 자랑스러워”…“법인과는 협력필요”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기호 3번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기호 6번
한균태 정경대학 교수



기호 7번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

Q. 소감

구성원 간 이견은 있었지만 이를 잘 조율하면서 결국 최종 후보자 3인이 결정된 것은 구성원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다. 총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정립된 절차에 의해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자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 개교 70년 아래 구성원의 직접적인 의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절차를 밟아 지금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안에서 최종 후보자로 뽑혀서 행복하다.

Q. 소감

책임감, 책무, 총장의 역할과 같은 부분을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제시했던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 및 세부 공약에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일 최종적으로 총장이 된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학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표해 모두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에서는 구성원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동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에 법인과 대학이 바라보는 목표의 방향은 다를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인과 대학이 함께 바라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준비한 상태로 법인에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은 뒤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대학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목표 실천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Q. 법인과의 관계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설립 정신이 있고 창학 정신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창학 이념과 잘 호응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인과 서로 긴밀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의 정책을 대학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소감

일단 대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다. 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솔직히 과정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교 70년 아래 처음 해보는 선거라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출 과정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처음이었지만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계속된다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을 위해 법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적이다. 우리학교 법인은 대학에 해야 할 의무를 100% 해주고 있는 몇 안되는 법인이다. 물론 발전을 위해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학에 투자하는 합법적 수의 사업에 대한 대학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 숫자로 보는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 법인 이사회에 보고될 최종 후보자 3인이 구성원 손으로 결정됐다. 최종 후보자 3인이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총장 선임 이후 중요해질 법인과의 관계를 물어봤다. 또 갖가지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번 선거를 숫자로 알아봤다.

7명

출마한 예비 후보자



3명

인문사회계열 예비 후보자



3명

이공계열 예비 후보자



1명

의학계열 예비후보자

15,712명

투표한 유권자 수



42.2%

전체 투표율

6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횟수



305분

예비 후보자 토론회, 정책 발표회 소요 시간

57일

총장 초빙 공고부터 최종 후보자 3인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Your Story? Our History!

3분 latte 영상 공모전

“나 때는 말이야...”

경희대학교에서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3분 latte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의 후배들에게 할머니의 대학(원) 생활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제작 주제

개교 70주년을 보는 개교 70주년의 대학(원) 생활

제작 분야

1. 교내 활동: 수업, 과제, 모임, 동아리, 소모임, 체육대회, 축제 등

2. 일상 생활: 학점, 평점, 동아리, 주거공간, 취미활동, 취업활동 등

3. 자유 주제: 경기자와 자유롭게 하루의 가위드를 선정

※ 예시: 나의 3분 살아 보는 3시간 동포길

제작 내용

대상 (1편):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편): 상금 30만원

우수상 (3편): 상금 20만원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원) 학생(휴학생, 수료생, 졸업예정자 포함)

※ 팀으로 참가 시 한팀 3인 이내

제작 주제

제작 분야

제작 내용

제작 내용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원) 학생(휴학생, 수료생, 졸업예정자 포함)

※ 팀으로 참가 시 한팀 3인 이내

제작 주제

제작 분야

제작 내용

제작 내용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원) 학생(휴학생, 수료생, 졸업예정자 포함)

※ 팀으로 참가 시 한팀 3인 이내

제작 주제

제작 분야

제작 내용

제작 내용